



산업체에서 기대하는 대학 교육

황 용 하

(이화전기공업(주) 기술담당 상무이사)

기업은 지속적인 변신을 통해 신 기술에 도전하고 연구 개발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기여도와 가치 창조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30년 전을 뒤돌아보면 국민소득 100불의 후진국에서도 저 소득 국가이었으나 현재는 그 100배가 신장된 10,000불이 된 고도성장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갈 길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은 대부분 국민들의 지나치리 만큼 적극적인 교육열에 의한 높은 교육 수준을 기본으로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 운동정신(사명감, 국가관 등 정신 지표 확립)의 국민적 공대감 형성과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지원(예를 들면, 수입 다변화 품목의 선정,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로의 유도 및 지원) 등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결과를 보면 중전기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수준은 세계 12위권이고 2000년대 초에는 8위국을 목표로 발전전략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중전기 산업의 발전전략)

그러나 세계 8위 국이 된다는 것은 150년 이상의 기술역사를 갖고 있는 선진국과의 싸움인데 12위권 진입을 위해 30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의 선봉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이 될 것이며 기업을 구성하는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쫓아가기만 하면 남보다 나아질 수 없듯이 선진국 교육제도의 모방 내지 답습보다는 선진국의 장점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변형 내지 발전시켜 새롭고 독창성 있는 한국적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되겠으나 기업체에서 바라는 대학교육은 인성교육, 전문교육, 학교별 특수성이 상호 조화를 이루

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1.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모든 능력에 앞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입시위주로 고교 시절을 보내고 가정적으로 핵 가족 화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교육의 부재, 공동체의식 부재와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오랜기간동안 지속되어온 우리 국민 고유의 정신질서 파괴로 인간형성 지표확립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서 판단력과 지성을 갖춘 집단인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체 중심으로 많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용 의식개혁 교육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교과 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여 우리 나라 국민의 독특한 정서를 살리고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살리고 젊은이들에게 사명감과 국가관을 심어줄수 있는 교육이 실시 되기를 바랍니다.

2. 전문성 교육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은 학생이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중심, 교수중심의 이론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 능력이나 생산 기술 능력 배양에는 거의 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학생들이 사회에 배출되어 산업체에서 근무하게 될때는 경영개념이나 경제개념이 상식적인 수준만 되어도 업무수행상 큰 도움이 되고 개인 발전에도 큰 몫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개념을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뒤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갖추어진 산업체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교수요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현직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산업체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능력, 생산기술 능력, 업무수행능력 등 실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교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높은 이론교육을 조화롭게 결합시킨다면 한 단계 발전된 대학교육이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인력공급자 중심체제에서 수요자 중심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3. 학교별 특수성 확보

현재까지는 모든 대학이 획일적인 curriculum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나 학교별 특수성을 살려 수준에 맞는 교과 과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학원 중심의 학교와 학부 중심의 학교가 구별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원 중심 교육을 추진하여 교수요원 또는 순수연구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학부를 계열화하여 학부에서는 학생들의 폭넓은 지식을 쌓게 하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과 창조적 전문성이 배양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산업체나 기타기관에 고급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학부중심체로 운영하여 산업체 등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가 무엇인지를 적절히 파악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분야는 좁아도 깊이 있는 전문기술 교

육이 실시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추는 학교 즉 중전기 분야는 어느 대학이 강하고 Computer분야는 어느 대학이 강하나 전력전자는 어느 대학이다 하는 대학마다 중점교육 분야를 만든다면 기업체에서의 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도 크게 할 수 있고 기업도 인재 발굴에 편의가 도모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현체제 속의 질서를 초월해야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으나 장차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우리 나라 젊은이들의 능력이 바로 국력이 된다는 대전제 하에 학교, 교수, 산업체, 정책수립기관 등 모두가 기득권이나 권위를 포기하고 정성을 다해 대학교육의 신기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 자 소 개



황용하(黃龍夏)

1949년 1월 1일생. 1976년 2월 한양대 공대 전자공학과 졸업. 현재 이화전기공업(주) 부설연구소장겸 기술담당 상무이사.